

# 통합예술로서의 실내·건축공간 연구

## The Interior architecture as an Integrated Art

- 설치·환경예술을 중심으로 : Focusing on Installation and Environmental Art -

김주미

원광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Joo-Mi Kim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Wonkang Univ.

중심어: *Integrated Art, Environment*

### 1. 서론

21세기로 향한 세기적 전환점에서 모든 가치구조, 사상 그리고 삶의 태도 등 다차원적인 변화가 전개되고 있으며 예술전반 영역에서도 이러한 시대개념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일련의 새로운 시도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예술을 그 시대, 가치체계의 반영체로서 바라볼 때 종래의 환원적(reductive), 결정론적(deterministic)인 조형적 태도와 사고로는 이 시대의 복잡한 양상과 비예측적으로 전개되는 카오스(chaos)적 현상들을 표현해내는 데는 그 한계가 있다. 디자이너는 이러한 사실에 대응해야 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무언가 새로운 개념 생성과 함께 변화의 부분보다는 전체성(wholeness)을 반영하는 조형적 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본다. 인과론에서 우연성의 원리로 이분법적 일원성에서 전일적 다원주의로, 순수주의에서 절충주의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예술분야에서도 탈경계, 탈영역 등 인터미디어(intermidia) 예술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인간과 자연의 통합 그리고 회화·조각·실내·건축·외부환경등이 서로 상호 침투되어 다양성과 복합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통합예술로서 실내·건축환경의 출발은 더이상 내면적인 것의 서술이나 이미지가 아니고 현실에 대한 태도로서 새로운 시각 환경에 대응하는 다양한 매체와 조형적 방법을 활용하여 의미·상징·기호·정보로서의 예술형태, 즉 다차원적인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는 환경적 장치(setting)로서 디자인되어야 한다.

모더니즘이라는 막연한 관행에 얽매여 제한된 방법, 매체와 장르의 순수성을 강조하는데서 벗어나 다양한 표현방법의 가능성과 그 효용성, 즉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소홀히해왔던 사실을 반성하고 전통적인 디자인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재를 수용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제 예술대상을 고립한 부분적 개체로 보아서는 안되고 확장된 환경의 문맥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변화하는 모든 예술적 상황을 인지하고 미래시대를 위한 통합 예술로서의 새로운 실내·건축에 대한 개념적 해석과 그 필요성을 본 연구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다.

### 2. 현대예술의 다원적 경향

개념예술, 라이트아트, 퍼포먼스아트, 신체예술, 대지예술, 과정예술, 생태예술 등이 설치·환경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하이테크놀러지와 미디어를 이용한 현대예술 영역으로 비디오아트, 홀로그래피아트, 컴퓨터그래픽스, 정보예술과 같은 표현이 널리 논의되고 있다.



그림 1.  
쿠르트 슈비터스  
(Kurt Schwitters),  
메르츠바우(Merzbau),  
1920-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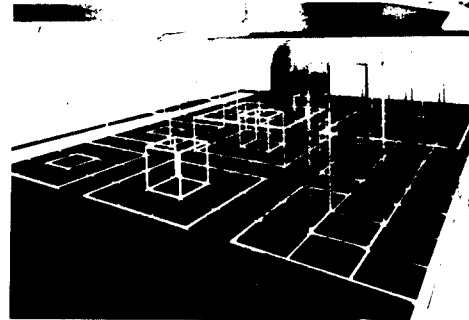


그림 2.  
솔 르윗(Sol LeWitt),  
Sculpture Series 'A', 1967.

다다이스트(Dadaist)인 마르셀 뒤상(Marcel Duchamp)의 예술적 대상으로 선택되어진 레디메이드(Ready made)와 쿠르트 슈비터스(Kurt Schwitters)의 환경적 콜라주개념(그림1)그리고 미니멀리스트(Minimalist)인 도널드 쥬드(Donald Judd), 솔 르윗(Sol LeWitt), 토니스미스(tony Smith)의 환경적 조각 개념(그림2,3)들은 예술 소재와 전개방식에 대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본다. 형태의 개념들을 구조의 개념으로, 공간의 개념을 장(場)의 개념으로 대치시켰고, 시간과 공간이란 전체적인 장에서의 관계성(relatedness)들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조각들은 볼륨(volume), 부조(relief), 구성(composition) 중심의 작품



그림 3.  
토니스미스(Tony Smith),  
Smoke, 1967.

에서 벗어나 공간 및 상황과의 관계위에서 성립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970년대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프라이머리 스트럭처(primary structure)의 극히 간명하고 기하학적인 구성위주의 작품들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모더니즘의 환원적인 조형개념인 미니멀리즘에 대한 반작용과 더불어 비결정성이라는 개념에 근거한 후기구조주의의 일환으로 탈미니멀리즘, 탈오브제의 주장이 일반화되면서 '탈'의 논리가 전개되었다. 또한 대형조각은 실내에서 밖으로 그 위치를 변화시켰으며, 대지, 환경예술등의 장(場)으로서의 조각적 개념이 확대되었다. 최근 현대의 입체파나 미래파 작가들이 시도했던 정지된 시간에서 파악한 공간의 입체적 표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상호작용하는 시공의 유동성있는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즉, 부피로서의 공간을 점유하던 표현 방식에서 맥락을 재구성하는 장으로 공간의 개념이 열려지고 있다. 그리고 물체와 물체주변의 공간, 관찰자의 반응의 영역까지 포함되어있다.

이제 과학기술이 미술의 한 장르로서 정착되게 되었으며, 미술은 물리적 공간의 환영외에 감각의 세계를 초월한 사이버공간(cyberspace) 영역의 환영, 즉 사이버문명을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관찰자 참여의 예술, 삶의 예술 등 상호정보 전달과 소통의 주제는 최근 광주 비엔날레의 정보 예술(infor art)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보화시대의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일종의 테크놀로지 예술을 표현하고 있다. 컴퓨터·비디오아트, 해프닝, 커네틱아트, 퍼포먼스 등을 인공지능 디지털기술과 결합시켜 예술과 관객간의 상호주관적 소통을 가능케하는 대화형, 즉 인터랙티브(interactive)아트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정보화 사회의 인터랙티브아트, 하이테크, 사이버아트, 정보예술 등은 기초적 예술방식을 전격적으로 도전하고 있으며 예술형식들도 복합적인 형태로 계속 전개되고 있다.

### 3. 퍼블릭 아트로서의 건축

건축환경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공공성을 가진 유일한 예술형식이다. 이는 현대사회에 어떠한 적합한 방법으

로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뜻한다. 건축환경은 도처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의 가치관이나 동기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훌륭한 수단으로 디자인행위는 사회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다차원적인 통찰 등 현대사회의 불확정적인 인식체계를 반영하려는 노력과 함께 실내·건축환경에 대한 재정의 및 범위를 확장시키고 모든 면에서 결여된 요소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공적 예술로서의 위상을 정립시켜야 한다.

기술정보의 발전 및 세계관의 변화는 구조의 이미지, 구조와 표면사이의 관계성을 변화시켰고, 구조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를 배제시킴으로써 탈구조화(de-structuring)의 양상과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형태와 기능의 완전한 상호변화 가능성에 대한 모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뉴패러다임의 특징은 상대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성, 다중구조체계는 실내·건축에 있어 보다 폭넓은 사고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기초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며 확실적인 형태이론에 억압받지 않는 진보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 즉, 현대의 다원적인 시대상황, 미학적인 비차별주의, 탈영역 등 상대주의와 전일적인 견해를 기반으로하여 모든 예술적 양상과 개념들을 포괄하려는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후기 산업사회의 현상이 문화적 형태로 침전된 탈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이론등과 함께 실내·건축디자인은 다른 영역과의 상호작용, 범주의 확장 등 탈 장르현상과 다원주의를 반영하려는 의지로 나타나고 있다.

### 4. 설치예술과 건축

'설치'라는 개념으로 불려지는 인스텔레이션(installation)은 1960년대 믹스트미디어와 환경예술이 보다 자유로이 융합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팝아트(pop art)와 개념예술(conceptual art), 미니멀아트(minimal art) 등에서 주로 표현되었다. 이는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실험미술의 한 경향으로 오브제와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표현되어지는 하나의 조형적 방법이며 전 장르에 내재되어 있어 예술대상에 대한 창조성과 개념의자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오브제를 이용한 조형적 전개 방식은 재료에 대한 종래의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으며 설치적 유형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오브제는 일상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도구이자, 예술가들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작품이며 매체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술대상에 오브제의 개념은 표현소재나 표현방법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물체로서 존재하는 예술의 폭이 넓어지고 예술작품으로서의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예술표현의 주체인 인간을 끌라주화 하고 일상생활 공간속에서 주제, 소재, 행위변화에 의한 여러가지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작품의 성격상 일회성,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장성을 포함하는 환경적 요인을 조형적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관객을 능동적으로 참여시켜 인간 삶의 주체적 예술형태로 승화시키고 환경과 상황으로 끌어올려 시공간개념을 융합하려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

인스텔레이션은 조형의식의 확장에 따른 공간의 다양한 적용으로 임의적 공간, 즉 실내공간 및 외부, 자연경관 등에서 부각되기도 하며 주위환경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심미적 차원의 예술개념과 다른 개념공간을 형성시키고 있다. 이는 새로운 공간창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건축공간에서도 인스텔레이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조형적 통합환경을 이룩해 낼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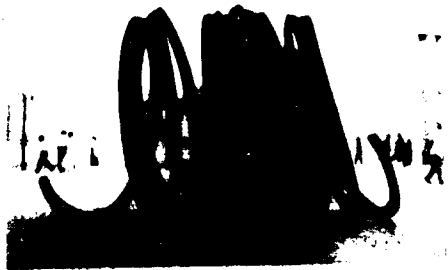


그림 4  
베르나르 브네  
(Bernar Venet),  
Indeterminate Line,  
1993



그림 5  
프랑코 게리  
(Frank O Gehry),  
Low White Fish Lamp,  
1984

최근 현대미술에서 회화는 평면을 초월하였고, 조각은 건축적 규모로 확대, 결합되어 탈조각화 현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실내·건축에서는 조형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통합예술적 성격으로 수렴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그림4,5,6,7) 예술작품이 건축물에 설치된다든지 그 부분을 이룬다든지하여 통합된다는 것은 우선 각 영역의 의미를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대자연을 이용한 설치적 작업은 환경적 구조의 양상으로 과거의 사물에 대한 예술적 개념이나 과정의 특정한 범주를 소멸시키고 평범한 인간과 예술가의 역할을 합치하게 한다.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새롭게 전개되는 인스텔레이션 예술을 통해 예술과 삶의 결합, 환경의 인간화가 달성된다고 보며, 많은 조형적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7.  
피터아이젠만  
(Peter Eisenmann),  
웁스너시각예술센터  
(Wexner Center for the  
Visual Arts)

## 5. 환경예술과 자연

환경예술은 혼성적인 생활과 예술의 경계타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적인 장(場)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예술가에 의한 신념의 표현이다. 환경예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표, 커뮤니케이션, 인간행동과 심리, 건축요소를 결합시키는데 있어 외부환경과 새로운 방법으로 화합하는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다. 최적의 환경예술로는 자연스런 주변환경과 관객의 잠재적인 경향에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매개물을 삽입시키고 인간을 참여시키는 환경을 의미한다. 환경예술이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원형을 이용하여 대중의 무의식한 현상을 도출해내고 심리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예술가의 예민함과 상상력에 달려있다고 본다.

환경예술은 미니멀아트와 그것의 환원적 경향의 한계로 인해 과정과 의미상의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자연, 즉 대지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대지예술가(earth artist)들은 사물자체의 강조된 예술 오브제에 저항하고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의 한 부분같은 자연을 선택했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 단지 그것을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살고, 경험하고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대지 예술가들은 선택하고 있다. 종결된 완성품들보다는 예술작업의 전체적인 과정 자체에 있고 자연적 상황, 개념적 사

고, 그들의 실체, 개인적 경험등과 작업함에 있어 삶과 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예술은 인간행동과 심리에 기초한 삶과 예술을 통합하려고 하는 조형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6. 결 론

모든 예술적 상황, 사고체계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실내·건축공간에 있어서도 일반문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현대 미술에 있어 설치·환경예술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시각적, 신체적 참여자로서의 관람자 개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예술의 민주화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디자이너는 건축과 회화, 조각의 통합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예술적 결합을 지향하여 예술작품 및 대상환경을 대중생활의 일부로 끌어들이야 한다고 보며 예술의 단위성 보다는 전체성을 우선하여야 한다. 또한 실내·건축환경을 유익하고 참된 퍼블릭 아트(public art)로 인정하고 현실주의로서의 건축도 아니고, 장소만을 제공하는 건축도 아니고, 양식으로서의 건축도 아닌, 통합 예술로서의 공간적 개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국 환경디자인을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미의 탐구로 보고 모든 예술적 경계 영역을 초월하여 서로 통합과 소통이 활발하게 이룩될 때 구축된 실내·건축공간은 예술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된다.